

여수세계박람회 D-36 “성공개최 문제없다”

‘프리오프닝’ 관람신청 폭주

5월 5일 행사 앞두고 나흘만에 6만명 몰려
전시관·문화예술 공연관람…기념품 제공도

여수세계박람회(5월 12일~8월 12일·이하 박람회) 개막전에 박람회장을 둘러볼 수 있는 ‘프리 오프닝 행사(오는 5월 5일)’에 관람객들이 몰려들고 있다.

박람회 조직위원회(위원장 강동석)는 지난 1일부터 ‘프리 오프닝 행사’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는데, 사흘만인 지난 4일 현재 6만명이 신청을 마쳤다.

박람회 인기를 증명이라도 하듯, 신청 첫 날인 1일 오전에만 1만 명이 몰려들어 한 때 인터넷 황폐화까지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.

조직위는 이런 추세로 볼 때 4월

특별 입장료(유니세프 기부금)만 내면 참가할 수 있고, 박람회의 전시관 및 문화 예술 공연을 관람하게 된다. 어린이 관람객들에게는 어린이날 맞아 선착순으로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.

또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박람회장 전시관을 둘러볼 수 있고, 세계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스카이아트워 퍼아프오르간과 스카이아트워 내부에 설치된 해수담수화 시설에서 만들어진 물을 직접 맛볼 수도 있다.

또 60m 높이의 스카이아트워 전망대에 올라 주변 풍경을 둘러볼 수 있고, 유리로 만들어진 전망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아찔한 경험도 할 수 있다.

/오광록기자 kroh@kwangju.co.kr
/동부취재본부=임문택기자 mtlim@

여수공항 안전, 국제공항급으로 강화

국토부 1400항목 검사 통과

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여수공항의 안전·운영체계가 국제공항 수준으로 강화된다.

국토해양부는 5일 박람회 기간에 일시적으로 여수공항에 국제 부정기권 운항이 될 것으로 보고, 현재 인천과 김포 등 국제선을 운항하는 9개 항공에서 시행하는 ‘공항

증명제도’를 여수공항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.

국토부는 여수공항의 공항안전운영기준 적합 여부 심사와 안전운영체계 1400여 항목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이같이 인가했다.

공항운영증명제는 공항의 인력, 시설, 장비, 운영절차 등 안전운영체계를 정부로부터 공식 인

증받는 제도다. 이 제도는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가 지난 2003년 국제표준으로 채택해 적용하고 있다.

이로써 여수공항은 국제공항 수준의 안전을 확보하게 됐으며, 이를 계기로 이용객의 안전은 물론 여수세계박람회 관람객 유치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/동부취재본부=김창희기자 chkim@

“부산에서 먼저 만나요”

6~7일 흥보 투어버스 운행

‘살아있는 바다, 숨 쉬는 연안’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‘여수 세계박람회’ 개최를 알리기 위한 흥보 투어버스가 6일과 7일 이틀간 부산을 찾는다.

흥보 투어버스는 첫째 날 부산시청, 부산대학교를 거쳐 둘째 날

도 쉽게 박람회 관련 영상을 볼 수 있다.

박람회를 앞두고 부산에서는 주요 호텔 24곳이 박람회 공식숙박업소로 지정돼 손님맞이 준비를 하고 있다.

또 주요 호텔과 박람회장을 잇는 셔틀버스(6개 호텔, 9개 차량)와 부산항과 여수 신항을 오가는 크루즈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확보해 박람회 기간 부산을 찾는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.

/연합뉴스

부산역 등 시내 주요 지점에서 시민을 맞이한다.

버스 내부에는 스카이아트워를 비롯한 특화시설과 전시관 등 박람회 주요 볼거리를 소개하는 영상

이 상영된다. 소형 LED 영상 차량

도 함께 운행해 시민이 외부에서

여수세계박람회를 알리기 위한 일정을 실시합니다.

여수세계박람회를 알리기 위한 일정을 실시합니다.